

#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6월 12일



## 복음나누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6월 12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 16,12-15)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2-13-4)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 삶이 변화된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16,14)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해 주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을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경의 유래]

초세기에 신자들은 이마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성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강론이나 서간에서, 다른 교부들도 그들의 저술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세기경 레르돌리아누스는 초기신자들의 이러한 관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방에 들어가서나 나갈 때나 잠자리에서 식사 때, 밤에 불을 켈 때, 책을 읽거나 책상에 앉을 때,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기회에 성호를 긋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가정이 식사 전후에 짧은 기도와 함께 성호를 긋는 관습을 이어올 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흥내를 내게 하기보다는 존경과 기도로 성호를 일상 긋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호를 우리의 신앙의 외적 표식임을 깨닫고 정성되어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후에 성호를 그음으로써 자기의 생활 전체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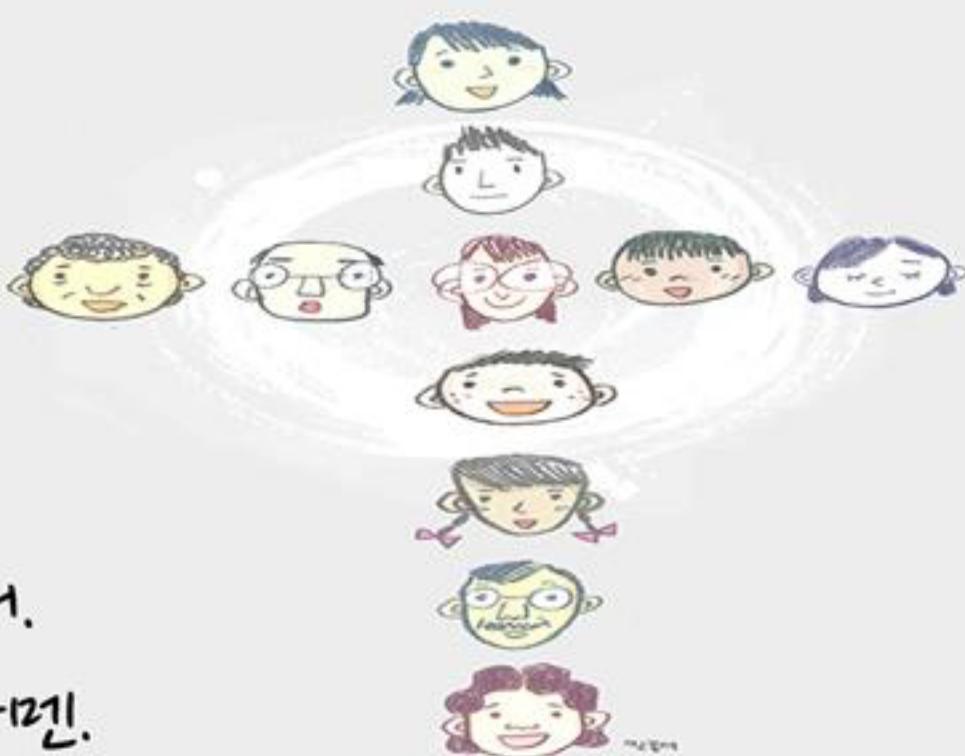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기게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복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궁금했어요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2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하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요 제일가는 사명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이다

(선교교령 6항; 교회의 선교 사명 14항; 마태 10,16; 루가 10,3; 요한 17,18; 사도 22,21).

#### 선교는 하느님 백성 전 공동체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아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세상에 파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들 위에 계시며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시고 당신 힘으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

(마르 28,16-20; 루가 24,46-49; 사도 1,8-9; 에페 3,8).

〈다음 호에 계속...〉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